

#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 도의회 행자위 25일 447회 임시회서 일부 수정 가결 조례안 처리 시점 놓고 일부 의원들 서로 다른 의견 27일 본회의서 최종 결정... 도 "조례 통과 선행돼야"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는 25일 열린 제44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행자위는 심의 과정에서 공단 운영과 관련한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공단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고, 제주도가 공단에 관한 사무를 넘기는 시점은 '이사장이 공단 설립 등기를 마쳤을 때'로 명확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처리 시점을 두고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

렸다. 일부 의원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이사장 선임 등 핵심 절차가 차기 도정에서 이뤄질 예정인 만큼, 현 의회가 아닌 차기 의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이사장 선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결국 차기 도정에서 주요 절차가 진행될 사안이라면 현 시점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의

견도 나왔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가 장기간 이어져 온 만큼 더 이상 미룰 경우 동일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며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지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 역시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 행정이 추진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사장 선출 등 권한은 차기 도정에 넘기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례 제정 등 입법 절차를 우선 마무리하고, 이사장 선출과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도정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할 경우 민간 위탁 대비 비용 절감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타당성 부족으로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는 1000명이 넘는 과도한 정원 설계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도는 대상 사업을 하수·환경 분야로 축소하고 정원을 387명 규모로 조정했다. 도는 공단 운영을 통해 연간 약 7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국힘 제주도당 당원 "청년 오디션 설계 오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 '청년 공개오디션'에 대해 당 내부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당원들로 구성된 단체공청의 눈·청년의 소리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청년 공개오디션 공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들은 "청년 공개오디션은 공개 경쟁과 청년 참여 확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청년에게 공정하지 못한 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1인 3표씩 6일간 3개 권역별

투표는 특정 세력으로 인해 투표가 오염될 수 있는 구조"라며 "예산상 득표자에게 본선 패스(PASS)가 부여, 시·도당위원장 추천이나 중앙당 경력, 장기당원 이력 등이 가산 패스로 연결되는 구조는 신입 청년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청년정치 행상성 장식이나 외연 확장용 소모품으로 취급되지 않길 바란다"며 "청년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명한 룰과 더 정교한 검증, 안전한 내부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 "폭행 의혹 고기철 위원장 엄정 수사를"

### 이명수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 기자회견 "국힘 탈당"... 고 위원장 "조작된 증거·무고" 주장



이명수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무처장이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예정이다. 수사심의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의하는 절차다.

이 전 사무처장은 "오늘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해 당과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도 없다"며 "고 위원장의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밝혀달라는 일념으로 긴 시간을 버텼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단순히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라 강자의 권력으로 약자를 농락한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 문제"라며 "사무처장 시절 고 위원장과는 여러 가지 사안에서 갈등해온 것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배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참고인 진술을 한 사람 중에는 현재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후보자가 있다"며 "비례대표 추천을 의식한 우호적 진술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조작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지난 1월 발생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모 위원회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장을 진술한 녹취록 등을 확인했을 때 무고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양유리기자



도두 어촌계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제주도에 대해 마련을 촉구했다.

강희만기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 도두어민들 어제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

도두 어민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부실하게 시공됐다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두어촌계는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 그동안 공공하수처리장의 미처리 배출수는 어민들의 황금어장을 백화현상으로 뒤덮었다"며 "신설 방류관 공사는 점용면적 외

에 수중 암반을 파헤쳐 어민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장이 황폐화 돼 생산량과 소득이 줄어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었기에 위안을 삼았지만 지방보조금마저도 매년 삭감되고 있다"며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직접 면담에 나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 4·3 증언본풀이 마당

### 27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

제주4·3연구소는 스물다섯 번째 증언본풀이 마당 '4·3과 기억-2003 하귀에서 1948 조천으로'를 오는 27일 오후 2시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증언본풀이 마당에서는 제주 하귀와 조천 출신 4·3 희생자 유족들이 직접 참여해 생생한 경험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증언에 나서는 애월면 하귀리 출신 고창선(1935년생)씨의 친형 고형만씨는 '외도지서 장작사건' 당시 대구형무소로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다. 이후 고창선씨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하귀리 영모원 조성을 주도했다.

또 다른 증언자인 조천면 신흥리 출신 현정옥(1948년생)씨는 4·3으로 부친을 잃었다. 현보규씨는 1949년 2차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그 해 10월 2일 정뜨르 비행장에서 총살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이명수 전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며 고기철 제주도당위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6월 대선 기간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경찰에 고 위원을 고소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6일 오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 제주 최초 청각학박사학위 취득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청각학)

**정확한 청력검사**  
**전문 보청기 상담**

**보청기 상담은 청각학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 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적응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멍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대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영광기'가 '사용성의 중요성'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원심리 심의번호 2020-GN180079

# 와이덱스 보청기 강동우 청각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박사

장학 협력 교

산학 협력 청

전문 어재

전언